

출판문화원『시민의회로 가는 길』 『외국어 교육의 미래』 발간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우리학교 출판문화원이 『시민의회로 가는 길』, 『외국어 교육의 미래』를 출간했다.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접 들어봤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 김상준 저

“완전하지 않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상준(사회학) 교수는 ‘시민의회’라는 개념을 고안해 20년간 연구해 왔다. ‘시민의회’는 국회와는 별개로, 시민으로 구성된 제도적 기구로, 대화와 토론으로 공공의제를 다룬다. 저자는 시민의회에 대한 그의 생각을 책에 정리했다.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부터 그가 처음 시민의회 개념을 구상했던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시민사회에 관한 저자의 연구 과정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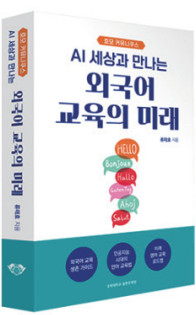
20여 년 전 김 교수의 주장은 현실과 먼 얘기처럼 받아들여졌다. 현재는 벨기에, 아일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시민의회를 정치적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선 2016년 거

라 전망했다. 책을 통해 시민의회가 전 세계에서 적용된 방법, 한국에서의 논의 및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시민의회를 연구한 당사자가 직접 소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외국어 교육의 미래』 류태호 저

미국 제임스 매디슨 대학교에서 교육공학 교수로 재직 중인 류태호(언론정보학, 1998) 교수의 신간이다. AI를 활용한 교육 전환을 주제로 연구 중인 류 교수는 책에서 AI 발달과 외국어 교육의 관계성을 다룬다. 책은 ‘상상이 현실이 되다’, ‘언어란 무엇일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외국어 교육의 변화’, ‘외국어 교육의 미래’ 4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인간이 각자의 독특한 언어로 의사소통하며 살아온 ‘호모 커뮤니쿠스’라고 말한다.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했고,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의사소통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AI를 통해 실시간 통번역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는 전망이 넘쳐난다. 외국어 학습의 중



출판문화원 신간 『시민 의회로 가는 길』, 『외국어 교육의 미래』 (사진=출판문화원 제공)

을 탄핵 정국을 계기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듬해 대선에서는 세 후보가 시민의회형 ‘국민참여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선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생기며 시민의회 개념이 한국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2005년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울타리로서 시민의회를 처음 제시했을 때와 지금을 생각하면, 여전히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한국도 시민의회 입법화가 되어 하고, 이것이 굉장히 긴박한 문제라는 걸 지난 내란 사태가 다시 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제 시민의회는 많은 나라에서 누구나 하는 이야기가 됐고, 곧 정치학 교과서에 실릴 것”이

요성을 경시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저자는 외국어 교육의 미래를 설명한다.

류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해도 대학생들이 외국어 교육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해외여행 중 식당에서 주문하는 정도의 외국어는 앞으로 더 배울 필요가 없게 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언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학에서도 외국어 교육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수업·평가 시스템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마지막으로 “학생, 대학 당국, 교육부가 모두 변해야 한다”며 책에 담은 메시지를 강조했다.

체조부, 전국대회 단체종합 우승 전년 우승팀 한국체대 제쳐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 우리학교 남자 체조부가 ‘제50회 KBS배 전국기계체조대회’ 일반부 단체종합에서 우승했다.

김도훈(스포츠지도학 2023), 김진규(스포츠지도학 2024), 김현종(스포츠지도학 2024), 박호진(스포츠지도학 2023), 박화평(스포츠지도학 2024), 백두산(스포츠지도학 2023), 양승현(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가 출전한 체조부는 284.002점을 획득하며 282.967점을 얻은 전년도 우승팀 한국체대를 넘고 우승했다.

개인 종목에서도 여러 종목에서

순위권에 올랐다. 마루 종목 양승현, 안마 종목 김도훈, 철봉 종목 박화평 선수가 금메달을 땀고, 개인종합 박호진, 평행봉 종목에서 백두산 선수가 은메달을 따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단체종합과 주 종목인 안마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건 주장 김도훈 선수는 우승 비결로 팀 분위기를 꼽았다. 김 선수는 “실수가 나 와도 분위기를 살리려고 노력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돌아봤다. 이어 “개인이 잘해야 단체 종목 성적도 낼 수 있어서 서로 열심히 응원했다”고 말했다.

유옥열 감독을 돕고 있는 박광표 코치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

이 각자가 준비한 기술을 훌륭하게 해내서 우승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코치는 “모든 운동이 그렇듯 체조도 분위기 싸움”이라며 “선수들에게 ‘실수해도 괜찮으니 준비한 대로 하고 오면 된다’고 지도했다”고 말했다.

체조부는 오는 8월 23일부터 열리는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2025 전국대학·일반선수권대회’를 준비 중이다. 박 코치는 “KBS배 대회에서 우승했지만, 선수들이 부족함을 느낀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남은 기간에 잘 준비해서 문체부 대회에서는 더 완벽하게 시합에 임하자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